



삼성증권 김태현 광주지점장은 LG전자와 NHN을 추천했다. LG전자는 상반기 매출부진을 겪었던 휴대폰 사업부문의 3분기 실적에 당초 시장기대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4분기 이후에도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등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NHN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9.1%와 8.6% 증가한데 이어 3분기에도 계절적인 성수기의 영향으로 게임부문 수익이 강화되는 등 수익성 호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휴대폰 사업 실적 개선 기대 게임부문 수익성 강화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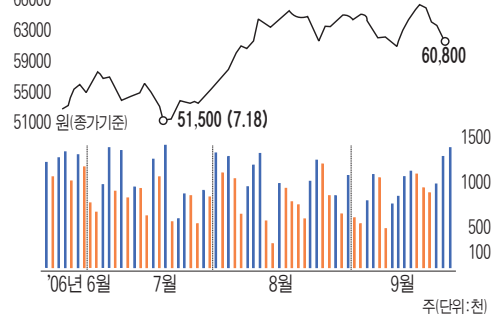
■ LG전자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부문 글로벌기업이다. 가전과 휴대폰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2002년 4월 상장 이후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면서 주가는 2003년 상반기 4만원대를 지지선으로 지난해 말 9만4천500원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매출의 36.4%를 차지하는 휴대폰부문의 실적악화로 6~7월 5만원대 초반까지 하락한 후 두달째 6만~6만5천원대의 박스권에 갇혀있다. 주봉상 1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6만7천원대의 매물벽을 돌파해야 상승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2천230억원에 달하는 등 휴대폰부문 실적 턴어라운드에 주가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LG전자 휴대폰은 미국에서 시장점유율과 고객만족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LG전자



이같은 실적호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37.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G필립스LCD의 실적악화로 지분법 평가 손실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휴대폰보다는 가전부문이 LG전자의 향후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 지적도 있다. 즉 가전부문은 수익성이나 브랜드 이미지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휴대폰부문은 노키아와 모토로라의 헤게모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LG전자의 저마진 상태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 NHN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코스닥 대표 우량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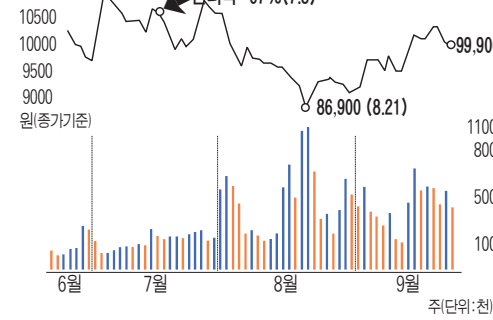
2002년 10월 상장 이후 인터넷 포털 1위업체라는 부동의 위치를 기반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다. 상장 당시 8천원대인 주가는 현재 10만원대 주 7월 200% 무상증자를 포함한 3번의 유·무상 증자를 감안하면 만 4년이 못돼 38배나 오른 셈이다.

2개월동안 무상증자 물량증대와 외국인들의 차익실현, 해외 인터넷주 약세, 뉴스홈 편 등 규제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해 주가가 약세를 보였으나 최근들어 계속되는 실적개선으로 9만원대를 지지선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매출구성엔 검색이 절반가량인 49.7%, 게임 23.4%, 배너광고 17.7%로 모든 부문에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폭발적인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 NHN



는 수익성 호전을 들어 상승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편이 우세하다.

하반기에도 검색광고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신규게임 상용화도 향후 주가상승 기대를 높이는 이유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주가는 14만원대이다.

그러나 큰 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뚜렷한 조정없이 신고가를 갱신해 왔다는 점이 부담이라면 부담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3억짜리 휴대폰

스위스서 5대 한정판매

서울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보다 비싼 휴대폰 전화가 선보인다.

24일 영국의 인터넷 뉴스사이트 아나노바에 따르면 스위스의 인터넷 전화회사인 VIPN은 최근 슬림 디자인에 본체 앞뒤로 다이아몬드를 박은 30만 달러(2억8천600만원)짜리 휴대폰 '블랙 다이아몬드' 5대를 한정 생산해 내던 초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유럽통신방식(GSM)인 이 제품은 2인치 LCD, 외장메모리, VoIP(인터넷전화)를 위한 SIP 프로토콜, 400만 화소 카메라 등 첨단 기능을 두루 채택했다.

외장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와 티타늄을 사용했으며 전면부의 조이스틱에 0.25캐럿(1캐럿은 0.2g), 후면부에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달았다.

LG전자의 초콜릿폰과 같이 터치 센서 키패드를 적용했으며, 실증이나 휴대폰화를 교체할 때에는 다이아몬드만을 별도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D램 반도체 '부동의 1위'

미국·유럽·일본 세계 3대 시장서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 세계 3대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아이서플라이의 최근 집계 결과, 삼성전자는 D램 부문에서 올해 상반기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3대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D램시장에서 올해 1분기 6억8천300만달러, 2분기 7억8천800만달러 등 상반기에 모두 14억7천1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려 35.8%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또 상반기 유럽 D램시장에서 전체 22억7천700만달러의 33.7%인 7억6천8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려 2위 키몬다(20.7%)와 3위 마이크론(16.4%)을 큰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각각 9.6%와 10.7%의 시장점유율로 4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일본 D램시장에서도 상반기 35.7%(6억6천800만달러)의 시장점유율로 일본의 엘피다(26.0%)와 하이닉스(13.9%)를 누르고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한국, 서비스수지 적자 심각

세계 37개 주요 국가 중 2위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세계 37개 주요 국가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7위로 높은 편이어서 관광산업과 교육 서비스 개선을 통한 서비스수지 적자의 축소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24일 '최근의 서비스수지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 1~7월중 경상수지 적자는 6억3천만달러인데 비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106억달러로 월평균 15억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몇년간 전체 서비스수지 중에서 여행수지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으며 매년 그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를 전 세계 37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본 결과 147억달러인 러시아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GDP 대비로는 약 1.7%로 37개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람도 돈도 공장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통계청 분석, 2000년 이후 지속

사람도 돈도 공장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인구 순유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동북아금융허브 등 정부의 의욕적인 해외 직접투자 유치정책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금액을 넘어섰다.

여기에 해외주식 및 부동산을 사기 위해 빠져나가는 자금이 울어들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등 노동력·자본·공장의 동시 해외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성장 잠재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내외국인을 합쳐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장기이민자(90일 이상 체류)는 전년보다 26.7% 증가한 56만2천명이었다. 반면 출국자는 33.0% 늘어난 64만3천명에 달해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이 8만1천명 더 많았다.

이러한 '출입국 수지' 적자는 지난 2002년 1만3천명, 2003년 4만4천명, 2004년 4만명, 2005년 8만1천명으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계속 해외로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월마트 "납품하려면 포장 줄여라"

상품 포장 거품 빼기

세계 최대의 소매 유통업체 월마트가 상품포장 거품빼기에 나섰다. 월마트는 22일 6만여개 납품업체에 상품 포장을 5% 줄이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에 따라 진행될 포장줄이기 계획 준수 여부를 납품업체를 선정하는데도 반영할 것임을

특히 지난해 내국인의 출국 초과현상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2만9천명, 10대 2만4천명, 10대 미만 1만7천명 등 20대 이하 연령층이 전체의 86.7%를 차지했다.

해외유학·연수자 중 학업을 마친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서 직업에 구하는 경우는 물론 출국목적에 관광·시찰로 기재한 뒤 현지에서 체류목적에 바꾸거나 불법취업 등을 통해 장기체류를 시도하는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70억8천만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49억1천700만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반기 기준으로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과 채권투자를 본격화하고 나선 데다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던 해외 투자자들도 보유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19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4 21 22 25 30 36	43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5,344,252,200	2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77,452,931	23
3 5개 숫자 일치	1,698,206	1,049
4 4개 숫자 일치	64,281	55,426
5 3개 숫자 일치	5,000	939,272

팝콘복권 (제22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6조 994054
2	5억	6조 994053
		6조 994055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96007
5	1만	각조 449
		각조 03
6	2천	각조 42
		각조 0
7	1천	각조 1



대통령의 추석 선물 '9道 茶' 대통령의 추석 선물은 우리 차(茶)를 널리 알리고 생산농가를 돕는 한편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통합이란 국정철학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9개 도를 대표하는 차와 다기세트로 구성했다. 백련일차(경기), 메밀차(강원), 허브차(충북), 구기자차(충남), 히소백련차(전북), 보성녹차(전남), 안동국화차(경북), 히동녹차(경남), 오가피차(제주) 등 9종이 들어있다. /연합뉴스

2000년 이후 근로자稅 감면 20兆원

전체의 5분의 1

정부가 근로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비과세·감면액이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20조원에 달해 전체 조세감면액의 5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에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감면액이 185% 늘어난 반면 농어민을 지원하는 비과세·감면은 33% 늘어난데 그쳤다.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발간한 '2006년 국정감사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액은 2000년 13조2천800억원에서 2005년 19조9천800억원으로 50.4% 증가했다.

이중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감면액은 2000년 1조6천288억원에서 작년에는 4조6천353억원으로 184.6% 증가했고 투자촉진을 위한 비과세·감면도 1조739억원에서 3조4천162억원으로 218.1% 늘어났다.

반면 농어민 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은 2000년에는 근로자나 투자촉진 지

원 비과세·감면보다 많은 2조1천908억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33.1% 늘어난 2조9천167억원에 그쳐 근로자지원은 물론 투자촉진 비과세·감면액 보다도 적었다.

근로자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은 빠르게 늘어나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액이 19조8천억원에 달해 이 기간 전체 비과세·감면액 97조5천억원의 20.3%에 달했다. 2000년에 12.3%였던 비중은 작년에는 23.2%로 높아졌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유)신일산업	생산직 사원 모집합니다.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25	062-956-7381
(주)그린텔	KTF 광주메이커센터 정규직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26	042-223-4900
(주)엔진테크	광주시내 초등학교 컴퓨터 강사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6	062-515-0195
(주)엔지테크	병원프로그램 개발자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7	062-675-8750
동양생명	본사 콜센터 수훈상사 상담원 150명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7	02-518-2769
(주)서울제약	서울제약에서 종합병원 영업담당을 모집(대전,광주지역)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9/29	02-3470-2390
(주)에이치씨대	(주)에이치씨대 V.M.D팀 신규 인력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9/30	02-3416-1213
(주)현대코리안	인조대리석 상판 제조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30	062-956-6852
신일가스(주)	매출정보작성,전산입력,사무보조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30	062-951-0011
(주)유로넷	무역부 직원 모집(영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2	062-973-6995
(주)유로넷	[주5일]SK텔레콤 광주 114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09	02-780-9595
(주)삼성홀더	가전,PC,중수리,멀티/A/S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2400~2600	10/09	011-632-5688
(주)한국에센	GIS관련 경력직 채용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0/09	062-651-9768
(주)알에이메세	롯데마트 첨단점 판매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0/09	062-572-083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포스코 목표는 글로벌화"

이구택 회장 해외진출 강조



이구택 포스코 회장(사진)이 "포스코의 최대 목표는 글로벌화"라면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강조했다.

24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구택 회장은 최근 신입사원 대상 특강에서 "국내 철강산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더이상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향후 30년후에는 국내 철강 생산량이 3천만톤인 해외에서도 3천만톤을 생산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인도·동남아·멕시코·브라질·터키·폴란드 등 수요가 왕성한 곳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까지는 원료를 싸게 살 수 있어서 한국이나 일본처럼 국내 자원이 없는 국가도 성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료 확보가 대단히 힘이 들 것이기 때문에 '제강까지는 광산 근처에서, 압연(롤링)은 시장근처에서'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또 신입사원들에게 "앞으로 여러분의 할 일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많이될 것"이라면서 향후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주인공이 돼줄 것을 주문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